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해상운송주선업 시장, 성장세 둔화



물류정책·산업동향

1. 세계 최대 풍력 터빈, 로테르담항 마스블락테 II에서 시험
2.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 완전 폐쇄 발표
3. 영국항만연합(ABP), 에너지 고효율 크레인 도입
4. 나이지리아 항만공사, 엔트워프항과 MOU 체결

명사 스피치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8년 대비 70%까지 줄이는 한편 2050년까지 전체 컨테이너선의 탄소 중립 도달을 목표로 환경경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배재훈 현대상선 대표이사

(2019. 11. 14. / ‘Lloyd’s Loading List Global Freight Awards 2019’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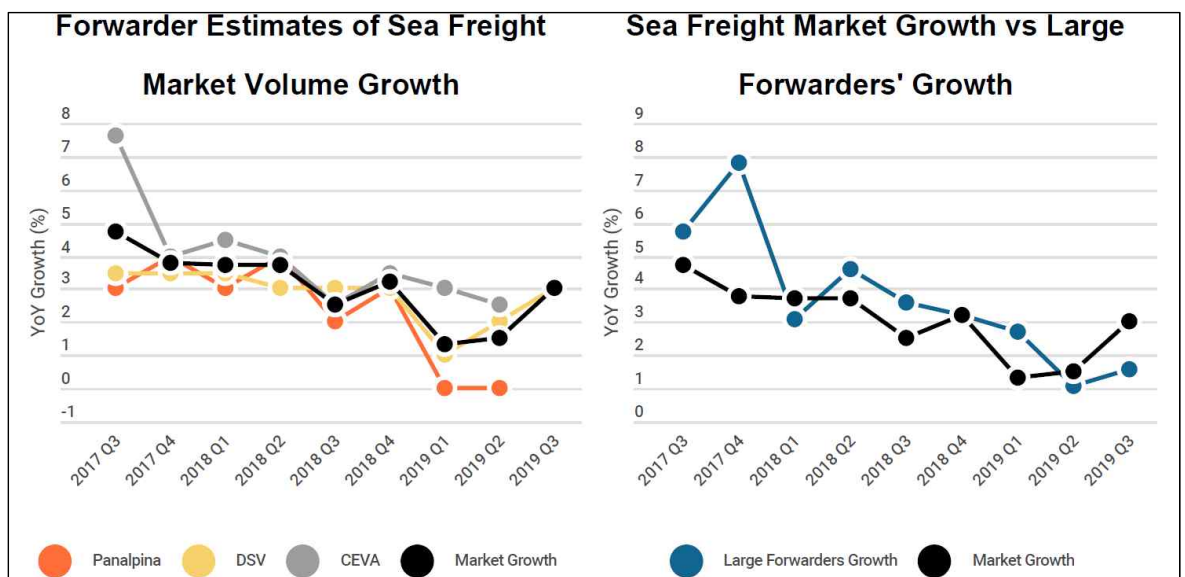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해상운송주선업 시장, 성장세 둔화

- 2019년도 3분기 해상운송주선업 시장 성장률 증가 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상위 20여개 운송주선업체 중 10개사의 성장률을 감안한 데이터 집계 결과,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1.6%, 직전 분기(2019. 2분기) 대비 0.5%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추산됨
 - DSV사는 3분기 시장 성장률을 3%로 추산, 1·2분기 대비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발표함
 - 반면 퀴네+나겔(Kuehne+Nagel)사는 금년도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고, Maersk사도 전 세계 제조업과 수출의 지속적 침체를 들어 연간 성장률을 1.5%로 전망함

포워딩사 별 해상운송주선업 시장 성장률 추이



자료: Transport Intelligence, Global Logistics Monitor Q3 2019¹⁾

- 지역별 교역량 분석 결과, 동·서양 간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Maersk사의 교역량 분석 결과, 유럽 대륙의 수입 증가량은 2.8%로 직전 분기(5.8%) 대비 증가 폭이 둔화되었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북미 지역의 수입량은 직전 분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섬(-0.5%)
 - 반면, 중동·인도양, 아프리카 대륙의 수입 물량은 증가세(중동·인도양 1.4%, 아프리카 3.0%)를 나타냄
 - 한편 서양으로부터의 동양 수입량은 유럽에서 아시아 지역으로의 교역량 증가(직전 분기 대비 8.9%)에 힘입어 3.1%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됨

■ 참고자료 : www.ti-insight.com, 2019.11.30.

김광모 연구원

051-797-4616, momo09010@kmi.re.kr

1) 판알피나(Panalpina), CEVA Logistics는 바이아웃 관계로 2019. 3분기 시장 실적을 제공하지 않음



세계 최대 풍력 터빈, 로테르담항 마스블락테 II에서 시험

- 미국의 GE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상 풍력 터빈인 Haliade-X를 개발 중
 - GE 재생 에너지(GE Renewable Energy)는 Haliade-X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 풍력 터빈인 Haliade-X 12MW 해양 풍력 터빈을 개발 중
 - Haliade-X 12MW 해양 풍력 터빈의 출력 12MW, 높이 260m, 로터 220m, 블레이드 107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약 16,000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음
- GE 재생 에너지는 마스블락테(Maasvlakte) II에서 Haliade-X 12MW의 시험을 진행 중
 - GE 재생 에너지는 Sif Netherlands, Pondera Consult와 협력해 로테르담항 마스블락테 II에 위치한 Sif Netherlands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서 Haliade-X 12MW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 GE 신재생 에너지, Sif Netherlands, Pondera Consult는 조인트 벤처인 Future Wind를 설립하고 5년간의 테스트와 15년간의 서비스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함
 - GE 재생 에너지의 관계자에 따르면 마스블락테 II는 주거 지역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고, 바다와 가까워 해상과 유사한 바람 조건을 갖고 있어 Haliade-X 12MW의 테스트에 적합하다고 언급함



자료 : <https://www.ge.com/>

- 마스블락테 II에서의 Haliade-X 12MW 테스트는 로테르담항만의 목표와 부합함
 - Sif Netherlands의 관계자에 따르면 마스블락테 II에서 Haliade-X 12MW를 테스트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리더가 되고자하는 로테르담항의 목표와 부합하며 이러한 노력이 스마트하고 깨끗한 항만을 만들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자극할 것이라고 언급함

■ 참고자료 : <https://www.portofrotterdam.com/> 2019.11.30.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 완전 폐쇄 발표

- 아디다스가 신발 제조공정 분산 및 소비자 수요 신속 대응을 위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독일 안스바흐(Ansbach)와 미국 애틀랜타(Atlanta)에 오픈했던 자동화 공장 스피드 팩토리(Speedfactory)를 늦어도 내년 4월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아디다스는 스피드 팩토리에서 한때 매년 100만 켤레의 신발을 생산했으며, 특히 안스바흐 스피드 팩토리는 아디다스가 1993년 독일 마지막 공장을 폐쇄한 지 23년 만에 다시 오픈한 것으로, 그동안 리쇼어링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음
 - 아디다스는 스피드 팩토리 기술이 보다 경제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 기술을 올해 말까지 베트남과 중국 공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 아디다스 글로벌 운영책임자인 마틴 생크랜드(Martin Shankland)씨는 스피드 팩토리가 자사의 혁신 제조부문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힘
 - 또 그동안 확보한 스피드 팩토리 노하우와 공급업체들의 향상된 기술을 결합해 보다 유연하고 경제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며, 동시에 생산 가능한 제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함
- 아디다스와 마찬가지로 나이키 또한 미국과 근접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자동화 생산을 시도하면서 공급사슬의 스피드 업을 위해 노력해 옴
-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생산이 보다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 때문에 두 회사 모두 여전히 대부분의 생산활동을 아시아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음
- 아디다스 대변인 클라우디아 랑게(Claudia Lange)씨는 완전 자동화 공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아시아의 신발 생산 여건이 낫다고 밝힘
 - 그는 90% 이상의 제품이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와 공급업체들이 있는 곳에서 스피드 팩토리 생산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언급함
- 아디다스는 스피드 팩토리 운영 협력사였던 외슬러(Oechsler AG)와는 향후 첨단 4D 프린팅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 참고자료 : <https://qz.com/> 2019.11.12.

<https://www.therobotreport.com/> 2019.11.13.

김은우 전문연구원

051-797-4680, hisgrace@kmi.re.kr

영국항만연합(ABP), 에너지 고효율 크레인 도입

- 지난 11월 27일 영국항만연합(Associated British Ports, 이하 'ABP')이 뉴포트항의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에너지 고효율 크레인 도입에 2.3백만 유로를 투자했다고 발표함
 - ABP에서 투자한 크레인은 에너지 사용량을 35% 줄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에너지 보관 시스템이 장착된 Mantsinen사의 120M 모델임
 - ABP의 웨일즈 지사장인 Andrew Harston씨는 뉴포트항이 영국의 국제 무역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크레인 투자는 ABP의 현재와 미래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 뉴포트항은 철강, 목재, 농업부문의 벌크 화물 등 고객들의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신규 도입 되는 크레인은 각 화물에 맞는 부가장치를 장착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화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함
- ABP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5,000ha의 항만에서 매년 150만대 이상의 차량과 9,00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매년 영국 경제에 75억 유로를 기여하고 있고, 119,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ABP에 따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투자가 영국 전역의 지역 경제에 더 많이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함



사진 : Port Technology, ABP invests in energy efficient crane, 2019.11.27.

■ 참고자료 : Port Technology, ABP invests in energy efficient crane, 2019.11.27.

강무홍 전문연구원

051-797-4684, mkang@kmi.re.kr

나이지리아 항만공사, 앤트워프항과 MOU 체결

- 나이지리아 항만공사(NPA)가 앤트워프항(PAI)과 나이지리아 항만 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MOU를 체결함
 - 11월 27일 체결된 양해각서는 5년간 유효하며 주요 내용은 인프라, 무역 활성화,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PPP)의 입주자 발전 환경 조성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함
 - 앤트워프항은 라고스항 추후 개발과 관련해 자문 역할을 하는 한편 APEC 해사훈련센터(APEC maritime training center)를 통해 세계 해사 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하기로 함
- 앤트워프항은 북유럽의 항만 중에서 서 아프리카로 향하는 가장 많은 직항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 아프리카 항만 개발과 관련해 입지를 강화하고자 함
 - 앤트워프항은 연간 1천 7백만 톤의 서 아프리카 항 물동량을 취급하며, 특히 나이지리아 물동량은 6백만 톤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나이지리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유럽과의 화물 운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앤트워프항 대표는 나이지리아 항만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한편 서 아프리카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발표함
- 나이지리아 항만공사 관계자는 앤트워프항과의 협력을 통해 항만개발, 전문성, 디지털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서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양자가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나이지리아 항만공사는 라고스항(Lagos), 틴칸항(Tin-Can), 리버스항(Rivers), 델타항(Delta), 칼라바르항(Calabar), 온네항(Onne) 등 총 6개 항을 관리하고 있음
 - 라고스항은 나이지리아 최대 항만으로 철로, 해상, 도로를 복합적으로 연결해 글로벌 항만으로 성장하고자 노력 중에 있음
- 이번 MOU를 통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유럽과 서 아프리카 물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nigeria-ports-authority-signs-collaborative-agreement-with-antwerp/> 2019.12.3.

<https://nigerianports.gov.ng/2019/11/27/press-release-npa-port-of-antwerp-sign-mou-towards-operational-efficiency/2019.12.3>

김한나 연구원

051-797-4588, h.kim@kmi.re.kr